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의 방과후 보호형태와 어머니의 애정 및 감독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오 선 영*(전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이 숙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중인 취업모 자녀 437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방과후 보호형태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 및 자녀 감독정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복지감의 차이와 관련변인들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아동 중 자기보호 아동은 42.3%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평균 4~5회이상 3시간이 넘게 혼자 집에 남아 있는 자기보호 아동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아동의 31.7%가 집에 들어갈 때 '허전하고 쓸쓸하다'고 응답하여 성인보호나 방과후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불안한 정서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보호 아동이 경험한 일 중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으로 '갑자기 몸이 아플때(50%)', '먹을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때(21.8%)', '갑자기 필요한 것을 찾거나 사야 할 때(14.8%)'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학원실태를 파악한 결과,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보다 학원을 다니는 수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복지감은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에 따라 불안양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 외로움에서 차이를 보였을 뿐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아동의 심리적복지감은 어머니의 애정과 자녀 감독정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복지감의 하위영역 중 아동이 느끼는 불안은 집단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방과후 어떤 보호를 받는냐에 따라 아동의 외로움과 자아유능감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유능감은 다른형태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아동의 심리적복지감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불안영역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학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영역에서는 아동의 학년, 어머니의 애정과 감독이, 자아유능감은 어머니의 애정 및 감독이 가장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아동의 심리적복지감과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에서는 성별, 어머니의 애정, 아버지의 직업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11%의 설명력을 보였다. 외로움은 학년, 어머니의 애정 및 감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0%였다. 자아유능감 역시 어머니의 애정 및 감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9%였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애정과 감독변인으로 아동의 심리적복지감의 세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보호형태는 아동의 심리적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적인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취업모의 안정된 취업지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